



통권 273

환경을 생각하는  
첫번째 실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 권해 주세요

6 2022

# 환경운동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함께해요~'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함께해요~'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함께해요~'

**‘슬기로운 지구생활’ 재활동 회원분들께**

지난 6월 4일 남산공원에서 2022년 환경의날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250여명의 당진시민들이 다양한 재활동 회원에 공기정화식물을 심어 주셨습니다.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함께해요~'



슬기로운 지구생활 '재활용 화분만들기'



소형모듈원자로(SMR) 바로알기 워크숍 개최



"바다친구들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 ▶ 발행일 2022. 6. 10.
- ▶ 발행인 손창원, 송영주, 황성렬
- ▶ 편집인 최오상
- ▶ 편집위원 팽말숙, 김정진, 이동준, 유형민, 임아연, 박은정, 조순형
- ▶ 당진시 무수동옛길32 태영빌딩 204호
- ▶ 전 화/ 355-7661
- ▶ 전 송/ 355-0443
- ▶ E-mail/ dangjin@kfem.or.kr
- ▶ http://dj.ekfem.or.kr

- 3 이달의 시  
| 적당한 속도, 서행 / 이병률
- 4 지역환경초점1  
| 슬기로운 지구생활 2022 '재활용 화분만들기'
- 6 지역환경초점2  
| 소형모듈원자로(SMR) 바로알기 워크숍 개최
- 7 지역환경초점3  
| "바다친구들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 8 지역환경초점4  
| 당진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
- 9 지역환경초점5  
| 오성환 당진시장 당선인, 지역 환경의제 전부 '찬성'
- 10 지역환경초점6  
| "소들섬 일대 철탑 공사 중지명령 함당"
- 11 지역환경초점7  
| 당진환경운동연합, 옥사·애경 불매 1인 시위
- 12 전국환경초점1  
| '동해안 산불'이 낳은 논란.인공조림 vs 자연회복
- 14 전국환경초점2  
| [논평] 에쓰오일(S-OIL) 울산공장 사고는 인재다
- 15 전국환경초점3  
| [논평]개발과 토건중심 말잔치에 기후위기 정책이 실종된 선거!
- 16 석탄씨를 구해줘  
| 21화 격돌! 석탄 vs 석탄발전소
- 18 전국환경초점4  
| 일회용품 '300원 보증금', 가맹점주 반발 떠밀려 12월로 연기
- 19 5월 살림살이
- 20 5월 활동소식
- 22 6월 주요사업 계획
- 23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 24 광고



## 적당한 속도, 서행

## 이 병률

미술관 그림 앞에서  
두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보라는  
경고를 들었다

그 밤  
낮에 본 사선의 빛 그림자가 자꾸  
떠올라  
잠을 못 이루다가  
잠을 못 이룬 것이  
그 빛 그림자에 겹쳐진 누구 때문인  
듯하여  
가까운 약속을 미루었다

밖에 나가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모두 다 사람 때문이었지만  
사람이 아니라 단지 과잉  
때문이었다

나도 당신에게 과잉했었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따위의 생각을 하게 된 요즘이라면  
해가 뜨더라도 바깥에 나가

사람 그림자를 밟거나

사람의 그림자가 몸에 닿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이 기분의 힘으로라도 살아야겠다면  
한없이 가벼워지라는 말을 들었다

자신을 만지라는 말이었다



**이병률** 199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서 '좋은 사람들'과 '그날들'이 당선돼 등단, 시집 『이별이 오늘 만나자고 한다 (2020)』 중에서

# 슬기로운 지구생활 2022 '재활용 화분만들기'

남산공원에서 환경의 날 기념행사 개최



환경의날 행사에 참여한 당진시민들 모습



미니태양광 만들기를 체험하는 모습



나만의 핸드폰 거치대 만들기 체험하는 모습

지난 6월 4일(토) 남산공원 분수대광장에서 22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당진시가 주최하고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슬기로운 지구생활 2022 재활용 화분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재활용 폐기물을 이용해 화분을 만들어 공기정화식물을 심는 행사였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기념식에 이어 재활용

화분만들기, 각종 체험행사 등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족단위로 행사에 참가자한 시민들은 사전에 안내한 내용대로 각자 가정에서 쓰레기로 버려질 폐플라스틱, 깡통 등을 이용해 화분을 만들어와 접수대에서 나눠 준 공기정화식물을 심어 아름다운 화분을 만들었다.

화분만들기 후에는 에코생협 당진점이 진행한 '유기농 매실청 담금기/유기농 팝콘' 체험, 당진시 에너지센터가 진행한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탄

소치기, 당진환경연합의 '나만의 핸드폰 거치대 만들기, 당진시청 자원순환과의 '우유팩, 건전지 교환' 행사 등 다채로운 체험을 즐겼다.

로 진행된 환경의 날 기념행사로 '하나뿐인 지구'의 소중함을 느끼고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시간이 됐다. [글: 사무국]

재활용 화분만들기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재활용품으로 화분을 만들어 공기정화식물을 심은 아이들



유기농 매실청 만들기를 체험하는 모습

## 소형모듈원자로(SMR) 바로알기 워크숍 개최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운 대표 발제



지난 5월 4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정운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의 강의로 소형모듈원자로 바로알기 워크숍을 진행했다.

한동안 지역의 큰 이슈가 됐던 핵발전 문제를 알아보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SMR) 바로알기 시민워크숍’이 5월 4일(수) 저녁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워크숍은 3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운 대표가 ‘기후위기와 원자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데 이어 참가자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발제에 나선 이정운 대표는 “기업의 소비주의는 소비자의 과잉소비를 부추기며 기후위기를 촉발하고 있다”며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서도 원자력 확대 정책은 이러한 기업의 과잉생산, 과잉소비 구조와 동일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원전사고의 사례를 설명하며 원자력은 결코 값싸지도 않고 안전하거나 청정하지 않다고 전 세계 과학자들의 공통된 결론처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서는 현재 원자력 학계 및 산업계에서 주장하는 SMR 관련 주장

은 모두 원자력 진흥논리에 의한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으로 사고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고 실제 피해자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인 만큼 지역의 시민사회가 원자력의 ESG(환경, 사회적책임, 거버넌스)에 대해 주권자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당진시민사회의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향후 지역사회의 대응방향을 수립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SMR 워크숍은 3월 18일 서울대 주한규 교수의 ‘석탄화력발전소에 SMR’ 발언으로 촉발된 핵발전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당진환경운동연합과 당진 에너지전환정책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내기후,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문화연대, 당진 시민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당진YMCA, 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 어울림여성회, 참교육학부모회 당진지회가 공동주관으로 참여했다.

[글 : 사무국]

# “바다친구들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 당진환경운동연합, 시민과 함께하는 해변 환경정화



지난 5월 21일 대호방조제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해변환경정화활동을 진행했다.

“플로깅은 어떻게 하나요?” 최근 주변에서 이렇게 묻는 지인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환경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플로깅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에서는 지난 21일 도비도 옆 대호방조제에서 시민들과 함께 플로깅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1시간 가량 쓰레기를 주운 참석자들은 쓰레기와 낚시 등으로 인해 버려진 특히 담배꽂초, 비닐, 플라스틱용기, 장화, 스티로폼 등 도로변 많은 쓰레기들을 보고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는 시간이 됐습니다. 실제로 대호방조제 뿐 아니라 바닷가 주변에는 각종 쓰레기로 어지럽혀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서야고 1학년 김현서 학생은 “작년보다 쓰레기 종류가 더 많아진 것 같다. 기후변화로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지만 양심없이 버리는 쓰레기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미래가 불안하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박은정 사무차장은 “바다에서 밀려 온 쓰레기들은 각종 비닐봉지 등 육상에

서 버려진 생활쓰레기도 많았지만 어업과정에서 발생한 스티로폼 부표 조각이 가장 많았다”며 “특히 대호방조제 길 구간마다 담배꽂초 때문에 나무와 길거리 주변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플로깅은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 없이, 집 주변 공원, 산, 하천 등에서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등·하교, 출·퇴근길에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준비물로는 봉투, 집게, 장갑만 있으면 됩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첫 번째 해변 환경정화활동에 이어 6월, 9월, 10월 총 4회에 걸쳐 ‘깨끗한 바다, 우리가 바라는 바다’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해변 환경정화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아이들에게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백마디 말보다,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통한 무언의 교육을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출처: 당진신문]

## 김 “민생에 주안 두고 행정 개편” vs 오 “허가과부터 없애겠다”

14개 시민단체 주관 당진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  
농업·교육·여성·환경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



14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한 당진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가 지난 24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6.1지방선거 당진시장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기재 후보와 국민의힘 오성환 후보를 초청해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14개 시민단체를 대표해 권오환 당진시여성단체협의회장이 인사말을 전했으며, 두 후보의 매니페스토 서약식이 이뤄졌다.

토론은 박인기 당진시민주노총당진시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권중원 당진YMCA 사무총장 △김학로 당진동학농민혁명승전목기념사업회장 △한수미 당진시대 취재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회는 14개 시민단체로부터 받은 분야별 질의와 패널 추가 질의, 주도권 토론, 객석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토론회 영상은 JIB제일방송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토론회 정리]

권중원: 석탄발전 부지에 소형모듈원전(SMR)을 건설하면 된다는 모 교수의 발언이 큰 논란이

됐다. 지역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 말해 달라.

김기재: 화력발전소는 국가기간산업이었다. 당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수락했으나,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당진은 14개 읍·면·동 곳곳에 환경 문제가 산재해 있다. 우리에게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과 생존권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소형모듈원전이 당진에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편 RE100 등 당진의 에너지 전환은 꼭 필요한 일이다.

오성환: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것이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진에 수소클러스터 구축을 약속했다. 이제 석탄연료 사용에 변화를 줘야 한다. 친환경 연료로 바뀌어야 한다. 당진의 발전소와 제철소도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

[출처: 당진시대 일부 발췌]

# 오성환 당진시장 당선인, 지역 환경의제 전부 ‘찬성’

## 당진환경운동연합, 10대 지역 환경의제 시장 후보자 질의

당진환경운동연합이 6.1지방선거에 출마한 당진시장 후보에게 지역의 10대 환경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 결과 오성환 민선 제8기 당진시장 당선인은 모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석탄화력발전소 수명 30년 전 조기 폐쇄 등 10대 환경정책에 대해 당진시장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으며 이에 대해 오성환 당진시장 당선인은 해당 환경현안에 대해 전부 찬성의견을 밝히며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의지를 나타냈다.

[글 : 사무국]

### <정책질의서 오성환 당진시장 당선인 답변 결과>

질의 내용	답변	답변 이유
석탄화력 조기폐쇄	찬성	대기오염과 기후위기로 인한 시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시설의 조기폐쇄가 필요하며 암모니아, 수소 등 친환경적 에너지 활용을 통한 전력공급 방안 검토
석탄 폐쇄 대안, 지역이 스스로 결정	찬성	
정의로운전환 조례 제정 및 특구 지정	찬성	비대면, 탈탄소 중심의 급속한 경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특구지정을 포함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에너지기금, 에너지센터, 환경감시기구 등 기존 지역자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설치·운영 방안(신설, 확대개편 등) 마련 필요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환	찬성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찬성	발전시설과 송변전시설의 밀집으로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이격거리 조계 개정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찬성	농지 잠식, 경관 훼손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자가소비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대 필요
기후위기 적응, 지역취수원 확보	찬성	대규모 축사, 농지 등 많은 지역내 오염원 분포상황과 해안을 접하고 유역말단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적절한 수질확보에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비상용수 차원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화학사고 대비 전담팀(인원) 배치	찬성	
석문호 해수유통	찬성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보전과 개선 방법의 하나로 인공호소의 해수유통에 원칙적으로 동의함. 그러나 석문호 주변 지역은 토지 및 수자원 이용에 관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환경보존과 지역개발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있는 지역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개발중심 도시계획 탈피, 새로운 도시계획 수립	찬성	단순 기반시설의 양적 확대가 아닌 도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스마트시티와 같은 새로운 기술과 전략이 융복합된 새로운 정책·계획 수립 필요

## “소들섬 일대 철탑 공사 중지명령 합당”

대전고등법원, 1심 판결 취소하고 한전 신청 기각  
 “10년 전 환경영향평가 근거로 공사 강행하려 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추진하라” 금강청에 민원 제기



지난 13일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소들섬 일대를 방문해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야생생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우강면 신촌리 소들섬을 비롯한 삼교호 일대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당진시의 처분이 합당하다는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북당진-신탄정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강면 주민들은 소들섬과 삼교호 일대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해왔다. 당진시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 철새 도래 기간 동안에는 34번~38번 철탑 구간에 대해 송전선로 건설을 하지 못하도록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이후 야생생물 보호대책 마련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누락 등을 이유로 또 다시 공사중지를 명령했다. 하지만 한전은 “해당 지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사중지 명령에 불복, “송전선로 공사가 긴급하다”면서 공사중지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한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경찰에 한전 고발

하지만 당진시가 제기한 항소에서 2심 재판부는 1심 결정을 취소하고 한전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대전고등법원은 “신청인(한전)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중지명령을) 정지할 만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중략)

금강유역환경청장 소들섬 현장 방문 한편 지난 13일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소들섬 일대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공동대표 김영란·유이계·이덕기)과 지역주민, 당진시 공무원, 이계양 충남도의원, 조류전문가 주용기 전북대 무형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김상섭 한국조류보호협회 아산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마을주민들은 정 청장을 향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해달라”, “고압 송전탑으로부터 자연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하 생략)

[출처 : 당진시대 일부 발췌]

# 당진환경운동연합, 옥시·애경 불매 1인 시위

5월 9일부터 매주 월요일 가습기살균제 책임 촉구 행동



5월9일부터 매주 월요일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옥시·애경 불매운동 1인시위를 진행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손창원 송영주 황성렬)이 5월 9일부터 매주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옥시, 애경의 책임회피를 규탄하는 불매운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19일 ‘옥시와 애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에 책임을 다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당진환경운동연합은 5월 9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옥시, 애경 불매운동 1인시위를 진행하며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의 적극적인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옥시·애경 불매운동 1인시위는 5월 9일 구터미널 로터리에 이어 5월 16일 롯데마트 당진점 앞, 5월 23일 당진공용터미널 입구에서 진행됐다.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은 “가장 책임이 큰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인 옥시와 애경이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조정안을 거부하고 있다”며 “전국의 환경운동연합과 연대해 옥시·애경 불매운동을 진

해하고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지 11년째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전국적으로 95만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사망자만 2만 명으로 추산되는 사회적 참사다. 2020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충남도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364,808명이며 이 중 건강피해경험자는 38,859명, 병원 치료 경험자는 32,103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2022년 3월까지 피해신고자는 217명, 피해구제 인정자는 149명에 불과할 정도로 밝혀진 피해자는 빙산의 일각이며 피해 규모도 아직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상황이다. 당진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는 15명이고 이 중 5명이 사망한 상황이다.

[출처:당진신문]

## '동해안 산불'이 낳은 논란..인공조림 vs 자연회복



2020년 안동 산불 피해 현장. 까맣게 그으른 피해목 사이로 자연적으로 싹을 틔운 초목이 보인다.

올 봄에는 유독 산불 소식이 잦았습니다. (중략) 이렇게 유례없는 대형산불의 원인 중 하나로 '기후위기가 지목되고 있습니다.(중략) 국내에서도 지난 5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대형산불'이 났습니다. 그만큼 잣더미가 된 숲이 많아졌고, 다시 예전 숲을 회복하는 데까지 더 많은 시간과 돈이 들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 숲 복원 방법을 놓고 공방이 붙었습니다.(중략) 핵심은 인공 복원이나, 자연 치유냐입니다.

### ■ 환경단체 "그냥 두면 스스로 회복"

(중략) 2년 전,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에서 (중략)피해목을 벌채하고, 나무를 새로 심는 데 지금까지 약 233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현장을 방문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새로 심은 나무(인공조림)보다 그 주

변에서 싹을 틔운 나무(자연회복)가 30cm 정도 더 빠르게 성장한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활동가들은 "인공조림을 위해 벌채를 하면 토양이 다 드러난 상태에서 햇빛이 들어 토양 영양분이 사라지기 쉬운데 이 때문에 성장이 더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중략)

환경운동연합은 이런 방식으로 피해 나무를 베어내고 옹기는 과정에서 심각한 토양침식이 일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이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자연회복'을 제안한 이유입니다.(중략)

무엇보다 자연복원을 하면 비교적 산불에 강한 것으로 알려진 '활엽수'가 자리를 잡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해마다 반복되는 대형산불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인공조림은 자연회복이 어려운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환경단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 ■ 산림당국 "어느 한쪽이 정답 아냐"

(중략) 산림청에 따르면 자연회복의 경우 그 지역에서 잘 자랄 수 있는 나무로 복원을 할 수 있고 토양 교란도 최소화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자란 나무들은 중심부가 잘 썩어 병해충의 근거지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인공조림은 초기에 나무 성장 속도가 느리고 큰 비용이 들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이른바 '경제림'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런 장단점과 지역 주민들의 입장 등을 반영해 복원 방향을 설정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산불 피해 나무가 그대로 남아 있는 모습을 보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장마철 산사태 위험성과 송이 생산을 기대하는 산주들의 입장도 고려할 필요도 있다는 게 산림 당국의 설명입니다.

산림청은 '생태'와 '경제성'을 모두 고려해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를 비롯해 전문가·학계·지역주민·임업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산불피해 복원 방향 설정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하고,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 ■ 인공조림 vs 자연회복 논란 '2ROUND'

(중략) 이번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의 경우 복원의 대부분이 인공조림이 될 거라고 환경운동연합은 전망했습니다. 산림청이 자연회복을 추진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은 동해안 산불 전체 피해지역의 23%에 불과하다는 게 전망의 근거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일에 이어 오늘(26일)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인공조림 중단과 환경부가 참여하는 '민관학연' 공동조사단 구성을 다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꾸려진 공동조사단은 지역재난대책본부와 국립산림과학원 등 산림청과 밀접한 기관이나 단체로만 구성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 당시 환경부와 산림청이 공동으로 주도한 민관학연의 공동조사단이 제시한 인공복구 51.5%, 자연복원 49%보다 오히려 후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산불피해지역을 다시 조림하려면 벌채를 해야 하고, 벌채를 위해서는 다시 작업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작업로를 만든 곳은 산사태가 피해가 훨씬 크다고도 했습니다. 2002년 태풍 루사 이후 자연복원지역과 인공조림지역의 토사 침식에 대한 연구 결과, 인공조림지역이 자연복원지역보다 토사유출량이 2,000배가 많았다는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중략)

이번에도 산림청은 사실이 아니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해안 산불 피해지 중 자연회복을 추진하는 면적이 전체의 23%에 그칠 거란 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뿐 아니라 나머지 피해지에 대해서도 여건을 따져 가능한 자연회복을 추진할 계획이란 건데요. 하지만 구체적 비율과 면적에 대해선, 앞으로 정밀조사와 복구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그래서 올해 연말쯤이나 돼야 나올 거라고 밝혔습니다. (중략) 한번 난 산불은 많은 것을 아깝습니다. 다시 옛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그래서 복원보다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그럼에도 이미 난 산불 피해라면 하루라도 빨리, 더 안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인공조림이냐, 자연회복이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출처 : KBS 일부 발췌]

## [논평] 에쓰오일(S-OIL) 울산공장 사고는 인재다

- 거듭되는 사고에 대기업도 예외 없어
- 원인해결과 책임을 무시하는 중대재해법 흔들기 안 돼

지난 19일 저녁 8시 51분경 에쓰오일(S-OIL) 울산공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원유정제공장(71개동, 70,554㎡)에서 압축밸브 정비 후 시운전 도중 폭발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불길은 20시간이나 타올랐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소속 김모씨(39세)가 목숨을 잃었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의 충격은 주민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현재까지의 정황들을 종합할 때, 에쓰오일 사고 역시 시설관리 문제로 인한 인재의 가능성이 상당히 보인다.

석유화학 공단을 포함한 국가산업단지 사고는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을 포함한 안전제도가 강화되며 사고는 일시적인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2021년 들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2014년~2020년 화학사고의 최대발생기업은 대기업이었으며, 대기업들도 이런 반복적인 화학사고를 막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함. 사고의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협조, 피해 최소화와 사과.” 라는 기업의 식상한 멘트들도 사고가 날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말뿐인 사과일 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없이 사고는 계속되고, 피해도 늘어만 간다. 단순한 레토릭을 뛰어넘을,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기업들의 해법은 엉뚱하다. 중대재해기업법 약화시도가 대표적이다. 경총은 지난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법안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고, 대표이사의 처벌을 면하게 해달라는 등 책임을 줄이기 위한 의도가 명확하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제도를,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할수록 사고의 악순환은 커질 것이다.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이미 가슴기살규제 참사를 계기로 강화된 화학안전제도를 약화시키려 했던 흑역사가 있다. 이런 실수는 한번으로 끝나야 한다. 중대재해법에는 안전사회를 향한 국민적 열망이 담겨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과 경제단체는 산업안전 정책 전반을 돌아봐야 한다. 시장과 기업의 자유만을 위해 규제를 타파하겠다는 처방은 적절하지 않다. 산업현장의 인명사상은 반복되고 있다. 비극적인 참사로 하루아침에 유가족이 된 국민들을 생각할 때 안전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제 기업의 관점이 변해야 할 시간이다. 중대재해법은 그 첫 걸음이다.

2022년 5월 24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 [논평] 개발과 토전중심 말잔치에 기후위기 정책이 실종된 선거!

정쟁으로는 지구 온도를 낮출 수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도 없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중요한 선거였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삶은 사라졌고, 윤심과 명심이라는 정쟁과 편 가르기만 남았다. 누구의 편인지 줄을 세우고, 시민들을 압박지르는 선거였다. 양당 공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골목골목 삶의 대안을 말하지 않았다. 더 높은 빌딩과 더 많은 도로, 더 많은 공항과, 더 많은 차들을 말하는 후보들은 차별화조차 되지 않았다. 그저 유력 정치인의 친분만이 정치적 자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심각해져가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에 대한 진지한 정책경쟁, 불평등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위한 대안모색도 사라졌다. 기후위기는 지구적 위기이지만 풀뿌리에서부터 시작하는 대안모색을 시작해야 한다. 지방선거는 이를 위한 정책경쟁의 장이어야 했다. 하지만 모든 후보들은 입을 모아 누가 더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있는지, 누가 더 토전 사업을 잘할 수 있는지만 목소리를 높였다.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 그저 모두가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는 허언의 향연 뿐이었다.

당장의 화려한 개발공약이 주는 말의 공허함은 지구의 온도를 낮출 수도, 아이들의 평온한 미래도, 지금 우리의 안전도 보장해주지 않는다. 환경단체들의 목소리는 철없는 목소리로 치부되었다. 기후와 안전을 고민하는 목소리는 정치영역에 닿지 못했다. 한국환경회의는 반성한다. 기후위기의 문제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불평등과 함께 약자에게 더욱 가혹할 것이라는 것을 더 열심히 말했어야 했다.

선거는 우리의 오늘과 내일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경쟁의 장이다. 단순히 투표행위만이 민주주의의 꽃이 아니다. 과거에 대한 성찰이자, 현재에 대한 평가이자, 미래에 대한 고민의 대결이어야 한다. 기후위기의 시대, 과연 이번 선거가 그러한 선거였는지 모든 정당들 또한 반성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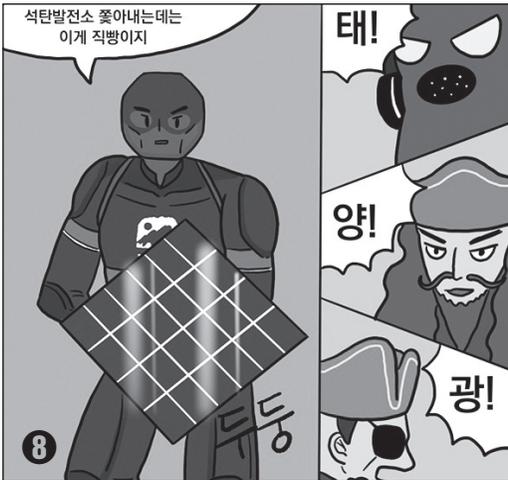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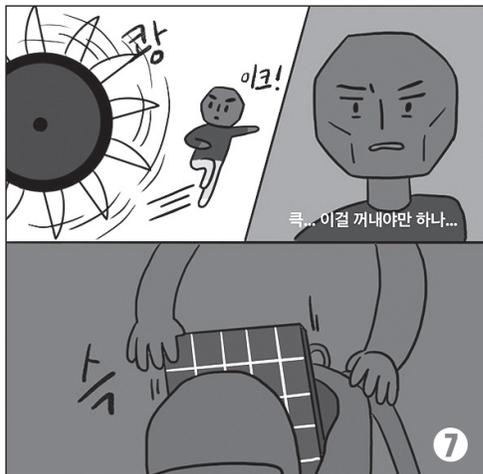
한국환경회의는 모든 정당들과 당선인들의 공약과 그 이행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회색이 아니라 더 많은 녹색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현재는 더 안전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더 많은 시민들과 우리의 오늘을 성찰하고 내일을 고민하는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2년 6월 2일  
한국환경회의



석탄씨를 구해줘

제 2화 격돌! 석탄 vs 석탄발전소



**탄소중립**

얼마전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탄소중립 목표가 언급됐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만큼 다시 흡수되도록 해서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는걸 의미해. 당연히 탄소중립이 되려면 엄청난 양을 배출하는 석탄발전소는 존재할 수가 없겠지!

**좌초자산**

좌초자산은 말 그대로 사회적 변화나 시장 상황에 의해 '좌초'해버릴 위험이 있는 자산이라는 뜻이야.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계속 운영이나 존립 자체가 불투명한 석탄발전소야 말로 대표적인 좌초자산이라고 할 수 있지.

**김석탄이 알려주마**

**탄소중립**  
얼마전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탄소중립 목표가 언급됐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만큼 다시 흡수되도록 해서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는 걸 의미해. 당연히 탄소중립이 되려면 엄청난 양을 배출하는 석탄발전소는 존재할 수가 없겠지!

**좌초자산**  
좌초자산은 말 그대로 사회적 변화나 시장 상황에 의해 '좌초'해버릴 위험이 있는 자산이라는 뜻이야.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계속 운영이나 존립 자체가 불투명한 석탄발전소야 말로 대표적인 좌초자산이라고 할 수 있지.

**프로필 링크 GOGO**



환경운동연합

## 일회용컵 '300원 보증금' 가맹점주 반발 떠밀려 12월로 연기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가맹점주들과 정치권의 반발에 떠밀려 6개월 유예된다. 2년 전 법 개정 때부터 도입이 예고됐던 제도가 시행 20여 일을 앞두고 갑작스레 미뤄진 것이다. (중략)

### 시연회까지 마쳤는데... 가맹점주들 집단 반발에 물러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주는 제도다.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내달 10일 도입되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지난 3월 관련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이 통과됐다. (중략)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가맹점주들의 반발에 부딪히며 제동이 걸렸다. (중략)

### 왜 반발하나... 돈 들고, 일 늘고, 냄새나고

가장 문제는 비용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 컵에는 바코드 스티커가 붙는데, 가맹점주들은 스티커 구입비로 11~17원을 부담해야 한다. 음료값과 함께 결제되는 보증금 300원에 대한 카드 결제 수수료 0.75~1.5원도 가맹점주 몫이다. 가맹점주들은 이 비용을 정부나 가맹 본사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으로 늘어나는 업무도 가맹점주들에겐 골칫거리다. 보증금은 동전으로 돌려받거나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동전으로 줄 경우에 대비해 100원짜리 동전을 쌓아 놓아야 하는 데다, 계좌이체 땀 자원순환보증금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바코드를 찍어야 해 여러모로 번거롭다는 것이다. (중략)

이물질이 묻어 있는 반환 컵 보관도 불만사항 중 하나다. 여름철 우유나 유제품이 묻은 컵을 하루 이상 보관할 경우 악취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 정치권까지 거들어... "이러다 쓰레기 대란 온다"

(중략)새 정부 들어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가 벌써 2번째 미뤄지자 곳곳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제도에 대해서도 정치권 요구에 떠밀려 과태료 부과를 무기한 연장했다.

박정음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 규제가 강화하고 있고,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을 늘리고 있는데 이번 정부는 반대로 움직인다"며 "폐기물에 대한 규제를 계속 미루면 2018년의 쓰레기 대란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 한국일보 일부 발췌]

(사)당진환경운동연합  
2022년 5월 일반회계 수입·지출 결산 보고

(단위 : 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액	항	목	금액
이월금	전월이월금	23,402,087	인건비	급여	5,637,500
회비	개인회비	5,900,000		퇴직적립금	365,820
	법인회비	20,000		사회보험료	462,410
	계	5,920,000		계	6,465,730
일반후원금	개인회비	20,000	경상비	복리후생비	0
	법인회비	0		세금과공과금	228,520
	계	20,000		소모품비	33,000
사업후원금	사업후원금	199,650		지급수수료	489,000
	계	199,650		기타운영비	221,900
단체지원금	단체지원금	0	계	972,420	
	계	0	사업비	기후에너지사업	571,300
보조금	기타사업	4,750,000		생태보전사업	1,316,110
	계	4,750,000		생활환경사업	50,000
지원금수입	지원금수입	0		조직·회원사업	991,310
	계	0		모금사업	0
기타수입	기타수입	0		연대사업	601,600
	계	0		기타사업	230,000
전입금	전입금	0		계	3,760,320
	계	0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비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
차입금	차입금	0			계
	계	0	이월액	이월액	23,093,267
		계		23,093,267	
월수입 총계		10,889,650	월지출 총계		11,198,470
수입 합계		34,291,737	지출 합계		34,291,737



### 5월 운영위원회 회의

지난 5월 3일 5월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SMR 바로알기 충남 시민 워크숍

지난 5월 12일 내포혁신플랫폼에서 충남시민단체 대상으로 소형모듈원자로 (SMR) 바로알기 시민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 고리2호기 수명연장 저지 투쟁선포식 참가

지난 5월 12일 부산역 광장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저지 투쟁선포식에 김정진 사무국장이 참가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국처장단 회의

지난 5월 13일 부산에서 전국사무국  
처장단회의를 열었습니다.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연대

지난 5월 20일 천안에서 차별금지법 제  
정 촉구 단식농성에 당진환경운동합 회  
원들이 연대했습니다.



## 깨끗한 바다, 우리가 바라는 바다' 해변 정화 활동

지난 5월 21일 대호방조제에서 3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해변정화활동을  
하였습니다.



# 01 일반사업

- ❖ 6/02(목) 11:00 에코생협 당진점 운영위 회의 - 에코생협 당진점
- ❖ 6/03(금) 11:00 에코생협 당진점 생활재위원회 회의 - 에코생협 당진점  
14:00 2022충남탈석탄컨퍼런스 자문회의 - 온라인
- ❖ 6/04(토) 10:00 세계 환경의 날 당진지역 기념행사 - 남산공원
- ❖ 6/07(화) 11:00 금강 보처리방안 이행 촉구 기자회견 - 세종 환경부 앞  
17:30 인사위원회 당진발전본부 채용 면접 - 사무실  
18:30 6월 운영위원회 회의 - 사무실
- ❖ 6/08(수) 11:00 충남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특위 회의 - 온라인
- ❖ 6/09(목)~6/10(금) 충남 에너지전환 활동가 워크숍 - 울산
- ❖ 6/10(금) 10:00 6.10민주항쟁 35주년 기념식 - 천안 신부공원
- ❖ 6/13(월) 14:00 충남도 환경계획 수립 참여단 워크숍 - 공주 고마센터
- ❖ 6/14(화) 15:00 석탄을 넘어서 '암모니아 혼소' 세미나 - 온라인
- ❖ 6/15(수) 16:00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체회의 - 내포혁신플랫폼  
18:30 상반기 신입회원 만남의 날 - 사무실
- ❖ 6/16(목)~6/17(금) 환경연합 비전혁신 활동가 워크숍 - 천안 광덕쉼터
- ❖ 6/16(목) 13:00 충남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회 회의 - 광덕산환경교육센터
- ❖ 6/17(금) 10:30 당진교육지원청 간담회 - 미정
- ❖ 6/18(토) 09:00 2022년 2차 '깨끗한 바다, 우리가 바라는 바다' - 미정
- ❖ 6/20(월)~6/25(금) 환경연합 신입활동가 연수
- ❖ 6/20(월) 15:00 시민사회 활성화 활동가 FGI -내포혁신플랫폼
- ❖ 6/21(화) 16:00 환경연합 신입활동가 연수 기후위기 교육 - 광덕산환경교육센터
- ❖ 6/22(수) 10:00 환경연합 신입활동가 당진화력 현장방문 - 당진화력
- ❖ 6/23(목) 14:00 충남도 환경계획 수립 참여단 워크숍 - 공주 고마센터
- ❖ 6/24(금) 17:00 공동의장단 회의 - 사무실  
18:00 보조·위탁사업 진행 평가 회의 - 사무실

# 02 회의 및 기타일정

- ❖ 사무국 회의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 주부환경지킴이-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최현준실용음악학원
- ❖ 소식지 편집위원회 - 6/28(화) 11시30분

# 03 지역현안

- ❖ 석문산단 불산공장 입주
- ❖ 석문산단 LNG기지 건설
- ❖ 송산·석문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 ❖ 당진화력-신송산 간 345kV 송전선로
- ❖ 북당진-신탕정 간 345kV 송전선로

이달회비 납부 회원

가봉현 강남기 강남호 강도연 강병수 강삼욱 강은구 강은식 고낙현 고락일 고영훈 고재만 고중민 곽성심 곽영복 구경숙  
 구미선 구분갑 구분재 구분찬 구분평 구분현 구승남 권석원 권영석 권중원 길호종 김경희 김경희 김광수 김광운 김광태  
 김권기 김기동 김기재 김길자 김남조 김남철 김남철 김달식 김대원 김동균 김동길 김동수 김동진 김동철 김동환 김두현  
 김명구 김명선 김명용 김명호 김미경 김미성 김민경 김민호 김백선 김병구 김병빈 김보담 김보겸 김봉균 김봉운 김석규  
 김석래 김선규 김성훈 김세진 김수정 김수진 김수창 김수한 김순동 김승수 김신순 김양중 김영민 김영삼 김영자 김영준  
 김예나 김용준 김용훈 김원용 김윤각 김윤태 김은주 김은주 김은호 김용열 김용영 김일권 김재성 김재영 김재진 김정근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아 김정진 김종균 김종래 김종범 김주석 김지환 김진 김진남 김진용 김진호 김철환 김춘이  
 김필배 김하경 김현기 김현림 김형기 김형모 김혜선 김혜숙 김호인 김홍장 김홍희 김홍환 나상흠 남정현 노경길 노정민  
 노창열 류연석 류제민 맹봉재 맹정재 명형남 문상수 문영미 문영수 문은호 문창모 박경미 박경서 박경연 박경일 박규섭  
 박근성 박기남 박기술 박기행 박미상 박미현 박상길 박상준 박성규 박성민 박세진 박순례 박신규 박연신 박영일 박용상  
 박윤숙 박은자 박은정 박은희 박이리사 박인순 박정연 박종대 박종연 박종화 박창순 박춘희 박태식 박혜규 박현순 박호완  
 박희경 박희복 박희정 방승미 방우진 배국희 백광현 백윤경 백종렬 서동우 서영순 서지현 성낙석 소병희 손강열 손영기  
 손영미 손종선 손창원 손화웅 송노섭 송병언 송수연 송연섭 송영주 송운호 송재한 송창병 송하중 송한결 신경상 신동균  
 신미희 신양웅 신진호 신철석 신현기 신현덕 신현하 심주현 심중섭 안길훈 안동일 안병호 안승환 안영순 안영훈 안효권  
 안효신 양근호 양영진 양정만 엄기태 오동원 오윤정 오의환 오추석 오현동 오훈순 우동기 원유영 원종경 유경자 유미화 유  
 성 유영석 유중준 유현경 육기창 윤기섭 윤기영 윤도현 윤범용 윤은경 윤인현 윤재무 윤정득 윤주홍 윤형순 윤혜신 이강선  
 이경미 이경용 이광선 이규달 이규철 이근주 이기중 이능용 이대우 이동준 이두용 이명자 이미영 이병구 이병도 이병천  
 이보은 이상록 이상문 이상용 이상우 이상일 이새봄 이석규 이선이 이수현 이순영 이승호 이영근 이영길 이영미 이영수  
 이영우 이용석 이원복 이원석 이은화 이인범 이인수 이인숙 이일구 이일순 이장희 이재상 이재성 이재순 이재화 이재훈  
 이정환 이정훈 이종관 이종필 이준성 이중호 이중영 이창규 이철재 이충휘 이해선 이해운 이현숙 이호경 이훈 이홍숙  
 인남교 인만교 인현옥 인호환 임관택 임광빈 임미숙 임수진 임아연 임종광 임종석 장규진 장덕기 장미경 전경배 전종숙  
 전향숙 정경채 정광영 정낙구 정덕영 정분환 정봉식 정상수 정선희 정세훈 정영표 정의철 정종환 정중섭 정찬관 정치용  
 조강호 조민형 조상연 조성대 조성준 조성환 조수용 조수현 조순형 조신형 조용재 조한영 주영권 지광선 차기능 차일병  
 차재석 차준국 채남기 채종국 천선휘 천혜경 최강부 최대실 최도현 최병수 최석현 최성욱 최세호 최연목 최오상 최완택  
 최원근 최은진 최인호 최일규 최장열 최재혁 최종길 최종원 최지웅 최창용 최혜인 최효진 팽말숙 하용자 하정미 하정이  
 한광현 한기홍 한문기 한미경 한상무 한상태 한성현 한수미 한수석 한영우 한원희 한청수 함효진 허인욱 현민 호상기  
 홍기석 홍덕선 홍두표 황성렬 황영호 황푸름 (주)다올건설산업 (주)디에스 글로벌천막 당진시대 당진여객(주) 당진천주교회  
 별나라어린이집 보덕사 상록인쇄사 생고뱅이소바코리아(주) 세실리아요양센터 영축농장 워너교육이벤트 율곡어린이집  
 정우건설(주) 해송 환경운동연합에코생협

# “시민과 함께하는 해변 환경 정화 활동”

## 깨끗한 바다, 우리가 바라는 바다

누군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로 바다는 몸살을 앓고 힘들어합니다. 바다를 지키고 깨끗한 지구의 환경을 만드는 행동에 당진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날짜 : 2022년 6월 18일(토) 오전 9시

▶ 장소 : 석문 해안가

-9시 문예의전당 주차장 출발, 12시 당진 도착

-일정은 날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봉사시간 3시간 적용됩니다.

-모자와 텀블러를 준비해주세요.

-식사(도시락)와 간식 제공해 드립니다.

-선착순 40명

-참가문의: 당진환경운동연합 041-355-7661



나눔과 도움을 이어주는 정감다리.....

공익재단법인 지속가능 상생재단

## 회원의 집 광고

### 상가임대

- ※ 대지 300평, 단층 건물 60평
- ※ 식당을 제외한 사무실 및 모든 업종 가능
- ※ 주소 : 충남 당진 석문면 대호만로 1508
- ※ 입지조건 : 석문 국가 산업단지 옆 (615 지방도로 인접)
- ※ 조 병 천 회원 : 010-3301-1192

### 에코두레생협 당진점

건강한 먹을거리! 생명의 밥상

다양한 생활재 할인 행사  
당진시 무수동 2길 20 벽우빌딩 1층  
041-355-7161

후원계좌

농협 301-0301-3325-91 사단법인 당진환경운동연합

※이 소식지는 상록인쇄사의 도움을 받아 발행되었습니다.